



2022. 12. 13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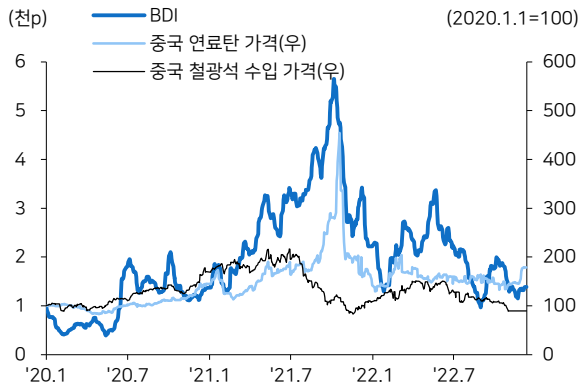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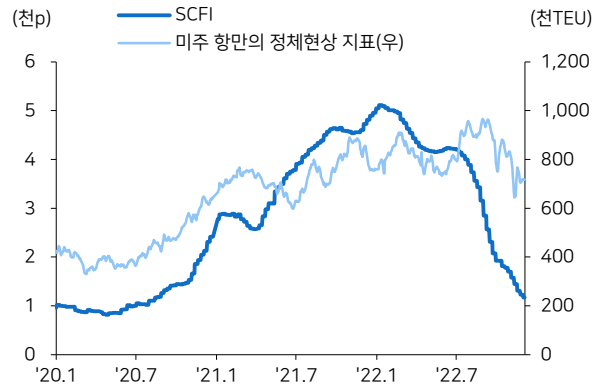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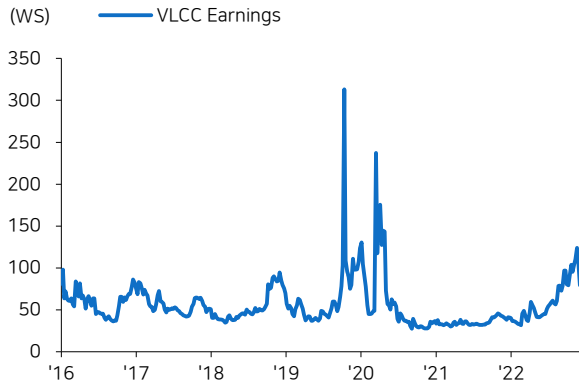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61.0p(-2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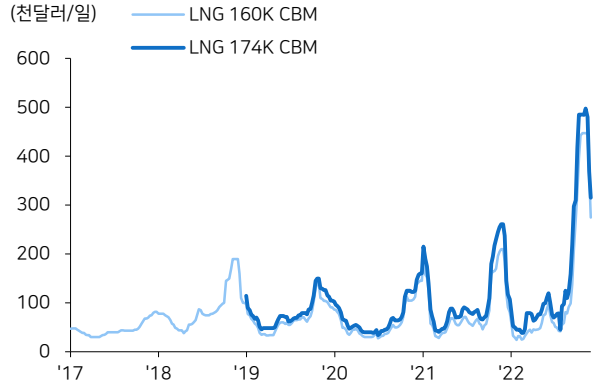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38.1p(-33.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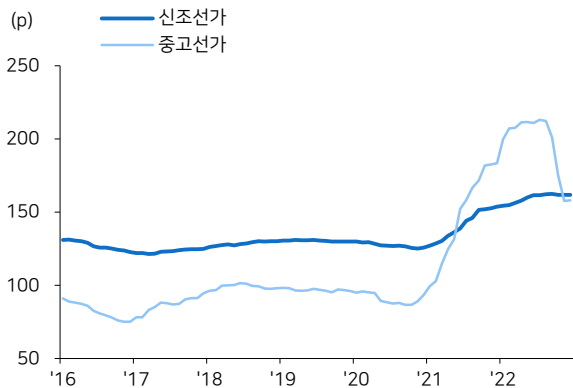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2p(+2.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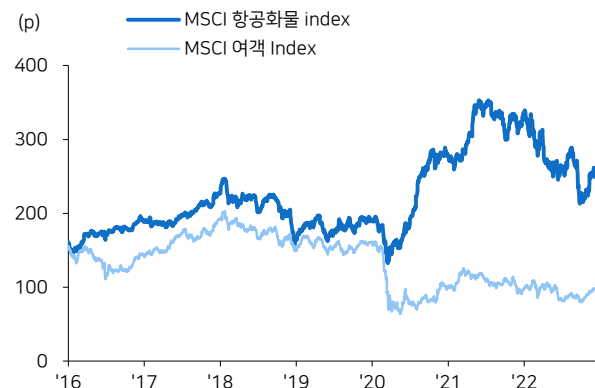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201.3p(-73.8p WoW)
280.0p(-3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1p WoW)
157.9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49.9p(-)
96.5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915억 규모 LPG선 1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915억원(6,930만달러) 규모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5년 3월 31일 인도 될 예정임. (뉴시스)

큐리어스파트너스, 삼성중공업 드릴십 1척 추가 매각 성공

큐리어스파트너스가 2022년 5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드릴십 4척 중 두번째 매각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유럽 선박투자자 컨소시엄과 체결한 드릴십(West Dorado) 1척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3,000억원을 최종 수령했다고 보도됨. 큐리어스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드릴십 4척을 1.04조원에 인수한 바 있음. 이번 드릴십 추가 매각으로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했다고 언급됨. (마켓인사이드)

제주항공 "10~11월 홍대호텔 객실 가동률 83%"

제주항공이 운영 중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객실 가동률이 COVID-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10, 11월 객실 가동률은 약 83%로, 지난 1~9월 평균인 40% 중반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알려짐. 팬데믹 이전 2019년 평균 가동률은 90% 초반 수준이었음. 외국인 투숙객 비율은 지난 2개월 평균 약 65%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이코노미스트)

Container ship demolition derby begins with feeder trio set to hit the recycling beaches

2년간 호황으로 초과공급을 겪던 컨테이너선 폐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됨. Star Asia Shipbroking에 따르면 지난주 3척의 피더선이 매각되었고 다음 주 내로 더 많은 폐선이 예정되어있다고 알려짐. 98년산 1,164TEU급 선박은 500달러/ldt, 89년산 760TEU 선박은 530달러/ldt에 매각되었다고 언급됨. 컨테이너시장 호황이 끝나가며 선사들이 선대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Force majeure declared on Keystone pipeline, no restart date in sight

캐나다 TC Energy가 Keystone 파이프라인 운영에 불가항력을 선언해 12월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도됨. 재가동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알려짐. 해당 파이프라인은 캐나다산 원유 600,000BPD를 미국으로 수송해옴. (Upstream)

Guyana sets date for bid round with 25 billion barrels in potential resources

가이아나가 탄화수소 250억배럴 규모 첫 해상 프로젝트 입찰 타임라인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14개 블록 계약 초안이 2월 13일 공개되고, 입찰접수는 4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임. 3개 블록은 ultra-deep water, 나머지 11개 블록은 shallow-water으로 구성되고 각각 10년, 5년짜리 계약임.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